

# 조주빈 먼저 재판에... '유료회원 · n번방' 까지 같길 멀다

### 박사방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관건

### 갓갓 · 코테 추적 장기화...업소여성 몰카방 수사해야

여성 성착취물 촬영·배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3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일단 박사방 관련 주요 운영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 및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 수사가 남아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사방 핵심 측근 거의 수면 위로...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관건

박사방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날 박사방을 만든 '박사' 조씨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같은달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박사방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국제공조 수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현재 조씨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사회복지요원 강모씨(24), 거제시 공무원이었던 천모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한모씨(26)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돼 있다. 현역 군인으로 알려진 '이기아' 이모씨(20대)는 군사법원에서 구속돼 수사 중이다.

이외에 조씨의 변호인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는데 그는 박사의 성착취 범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은 없고 초창기 텔레그램 상에서 방 개설을 할 때 협조한 혐의 정도만 받는 것으로 보인다.

13일(뉴스1)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경찰은 조씨의 측근을 대부분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검색책'인 사회복지요원과 '출금책'인 부마, 강모씨, 그리고 텔레그램상에서 박사의 유료방을 홍보하는 '홍보책' 이야기와 태평양,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는 '오피남' 한모씨 등이 핵심 측근이다.

다만 박사방 일당과 관련해 범죄 형량을 높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씨를 포함해 조씨의 공범들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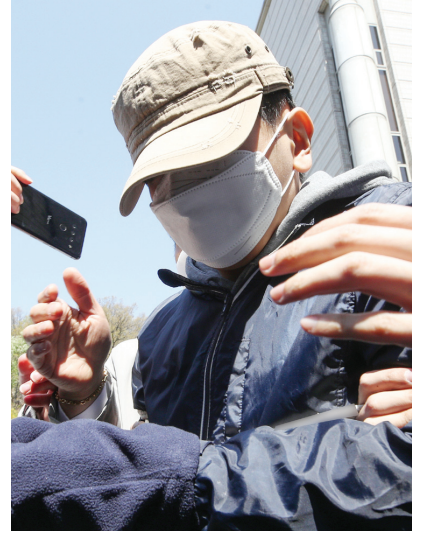
경찰은 박사방의 20만~300만원의 유료방과 무료방 회원들의 아이디를 특정해 역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무료방 회원 아이디는 중복 포함 1만5000개로 이중 실제 유료방 회원들은 수백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처벌에 대해 경찰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어떤(범죄)



조주빈



공범 사회복지요원



공범 부마

의도를 가지고 가담했는지 하나 하나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번방 '갓갓' '코테' 검거 전...적합한 운영진도 오리무중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n번방과 관련해 아직 핵심 운영진 '갓갓'과 '코테'는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은 지난해 10월쯤부터 활동한 박사방보다 먼저 운영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방이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운영됐으며 1~8번방과 로리방, 쓰레기방까지 10개의 방으로 운영됐다. 입

장료는 1만원 정도로 박사방에 비해 적었다. 처음으로 텔레그램 상에서 음란물 유통방을 공식적으로 크게 만들고 미성년자를 피싱해 성착취영상을 만들었다.

당시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진 '갓갓'은 트위터에서 일탈계에 활동 중인 청소년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골라 이들의 개인정보로 성착취 영상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이들을 '노예화'해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렸다. 갓갓의 핵심 측근으로는 코테가 있었으며 함께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갓갓과 코테에게는 조언자 '반지'도 있었다.

갓갓은 지난해 7월 돌연 n번방을 폭파하고 텔레그램상에서 사라졌지만 올해 1월 박사방에 등장해 태평양 이씨와 교류하며 "난 절대 안잡힐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잠적했다. 코테 또한 갓갓이 등장한 이후 1월24~26일 다시 박사방에 등장해 '코테'라고 적힌 종이를 든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잔뜩 올리고 사라졌다.

아울러 지난해 n번방 이후 파생된 음란물 유통방인 '고담방'과 '폐도방', '로리방', '완장방', '야공방' 등의 운영진들은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라 기자

## '안갓속' 이만희 동선 일부 확인...집단감염 단초될까?

CCTV통해 1월16일 대구·17일 경북 청도 방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은 지난 1월16일 대구, 이튿날인 17일 경북 청도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지역 일대에서 신천지발(發) 대구급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총회장의 동선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일 경기 가평 신천지연수원 앞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동선에 관해 정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나"라는 질문에 "지난(2월) 17일(평화연수원에) 와서 여기에 있기도 하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보조하던 신천지 관계자는 귀속말로 "2월17일에 왔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라고 조연했다.

다만 대구시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총회장이 지난 1월16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뿐이다.

단순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혹은 대구급 예배나 집회 등을 주관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총회장의 동선이 지역사회 감염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추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미국 오기는 승무원 '각자도생'... '자율격리' 이대로 괜찮나?

자가격리 의무사항 예외...정부·항공사 책임 회피 '급급'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망을 강화 가운데 정작 해외 접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승무원들은 예외사항으로 의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도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외 입국자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승무원들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지침 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일선 승무원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승무원은 감염을 우려해 귀국 후 자발적으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장거리 운항으로 인한 해외 체류시에도 자체적으로 '호텔 격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조치

를 마련해야 할 방역당국과 항공사들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승무원의 업무 특성상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경우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입장이다.

항공사들은 정부 지침상 승무원들이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다보니 강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역에서 접촉하거나 함께 있던 승무원은 격리에 들어간다"며 "하지만 일괄적으로 격리조치를 하기에는 정부차원의 지침도 없어 팀별로 위생준수나 해외 체류 시 호텔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